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2년 4월 22일(금)
--(음력 3월 22일)--
Пятница
22 апреля 2022г.
№ 15 (11982)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4월 24일은 부활절이다.



(이예식 기자 촬영)

사할린 주민들을 부활절 박람회에 초대

4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비롯해 돌린스크, 네웰스크, 코르사코브, 홈스크 지역에서 부활절을 앞두고 테마 박람회가 열릴 예정이다.

사할린 주민들은 박람회에서 지역 대형 생산업체들의 생선류, 육류, 유제품, 채소를 비롯해 농촌-농장 및 개인 농업 운영자들이 제공하는 식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

부활절 박람회는 4월 23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 돔 토르고블리 옆 행사장(프로스펙트 미라. 106)에서 열리는 가운데 식품 생산자들은 육류, 유제품, 제과류, 생선류 및 훈제 생선, 달걀 등 신선한 자회사 식품을 판매한다. 방문자들은 요리 식자재와 막 구운 제빵 및 제과류를 구입하고, 도너츠와 삼수, 탄디르 화덕에서 굽는 하차푸리를 맛보며 뜨거운 차와 커피도 맛볼 수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와 돌린스크의 행사장에서는 예술인들의 공연과 경연대회, 수공예품 전시회 등, 공연 오락프로그램이 계획돼 있다. 이외에도 23일에 가가린 시 문화·휴식공원 측은 부활절 전날 축제 프로그램을 계획한 가운데 경매 물품, 수공예품 장인들의 공예품 전시회를 연다.

친애하는 여러분!

4월 26일은 사할린주의 상징 중 하나인 사할린 깃발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날을 맞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청록색 바탕에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문양은 사할린주의 소중한 과거와 특별한 미래를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을 연합하게 합니다.

특히 올 기념의 해에 우리가 사랑하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생활을 위한 편안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지향하는 우리의 기획 <보살핌, 보호, 존중>이 있습니다.

이 기획은 의료적 문제, 주거지 보수, 가스화, 생활 전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난해에는 7만 명의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이 심층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진단했는데 이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의 주민들은 지역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므로 서로서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화합하는 가운데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있으며, 이 지역의 안녕을 위해 계획한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일이 잘 되시고,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조화롭게 되시길 기원합니다!

사할린 깃발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난민 24명, 사할린에 입도

사할린주 정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사할린에 들어온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난민의 수를 집계했다.

"러시아 내무부 사할린주 이민관리국 부의 보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이 전개된 이래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난민 24명이 사할린에 자발적으로 입도했다."고 사할린주 정부 알렉세이 벨리크 총재가 밝혔다.

24명 모두 친척과 함께 살고 있으며, 연방 예산에서 이들에게 각각 1만 루블리를 지급했다. 극동지역으로 온 난민들의 지원금은 벨로로드주 정부를 통해 지급된다. 이런 목적으로 8천6백65만 루블리가 책정되었다. 이에 지역 관계자는 주 예산으로 이들에게 사회적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주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긴장화된 지역에서 오는 난민

들을 도왔던 2014년- 2015년의 오래전 규정을 취소했다.

4월 1일부터 주 정부의 조치로 현재 사할린에 체류하는 난민 지원을 위한 일을 조정하는 작업반이 구성됐다. 주 정부는 사할린에 거주하는 난민 수를 집계했는데, 앞서 러시아 연방 정부는 1,305여 명을 보낼 수도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난민 수는 600명까지 줄었다. 이 수치에 따라 사할린에서 임시 거처를 준비하고 있다.

방송사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 전개 이래 러시아로 유입된 난민은 84만5천여 명에 이르는데 사할린주는 난민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다. 이유는 기후적으로도 친숙치 않고, 시장 물가도 러시아 평균 물가보다 높으며, 이후 귀국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돌린스크 구역, 새 진료소 준공

약 1,000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소진료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숫자에는 포크로브카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인 소스노보카와 옥짜브리스크의 주민들도 포함된다.

"이 신규 진료소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1차 건강관리 현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건설되었다. 이미 지역 곳곳에 수십 개의 의료시설이 문을 열었다. 올해에도 새 외래 진료소 건설을 위한 프로그램이 계속되고 있다"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강조했다.

새 의료기관은 현대적 기준을 충족하고, 표준 설계에 따라 건설되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단신

러시아 학생들, 1학년부터 러시아 역사 배우기 시작

교육부는 러시아 전 학교 1학년부터 러시아의 역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나치에 의해 희생된 소비에트 국민을 기리는 연대의 날인 4월 19일(화)에 모스크바에서 <진실의 힘!> 제1회 전 러시아 학생 역사 포럼이 열린 가운데 세르게이 크랍초브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역사를 가르치기 시작하겠다고 언급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을 전학 겸 대청소에 초대

4월 22일 14시 30분 유즈노사할린스크 문화·관광센터의 직원들이 평범하고 활동적인 모든 주민들을 '전 러시아 역사 및 문화 추념의 날' 행사에 초대한다.

세계 역사적 장소와 기념비 보존의 날을 맞이하여 2시간 동안 진행되는 행사는 사할린스카야 거리에 위치한 4개 기념 소공원 - 와실리 미하일로비치 골로윈, 니콜라이 와실리에비치 루다놉스키, 이완 표도로위치 크루젠슈테른, 겐나지 이와노비치 네웰스코이 - 에서 대청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별히 역사 및 문화유산 보호를 널리 알리기 위해 각 4개 소공원에서 활동 여건에 따라 대청소 참가자들에게 러시아 해양 탐험가들의 사할린과 쿠릴열도 연구의 독특한 역사를 소개하는 전문 관광 안내자의 설명으로 흥미로운 견학이 진행된다.

새고려신문

2022년 신문 구독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2년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92루블리 84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IIP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우리의 현대인

창의적인 사람으로서 다양한 방면에서 성장



지난 19일(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달네에 마을에 준공된 '루코모리예'유치원 개원식이 있었다. 이 행사가 유치원 책임 건설 담당자인 권 블라디미르에게는 의미가 깊었다. 1989년생인 블라디미르는 '오스톱' 건설회사의 수석 엔지니어이다. 개원식 날 저녁 8시에 퇴근 후 블라디미르가 신문사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늘 유치원 개원식에 리마렌코 주지사, 나드사진 시장 등을 비롯한 공식인사들이 많이 참석했고, 유치원에는 아이들을 위한 수영장, 놀이터, 온실 등 정말 좋은 시설을 완공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사실 그의 회사는 사회적 건물과 시설을 많이 공사하는 편이다. 블라디미르가 이 회사에서 일한 지 올해 10년째다. 그가 맡고 참여한 대규모 프로젝트 중에는 주산기 센터(유즈노사할린스크), 장애인 재활 센터(유즈노사할린스크), 키롭스키 신경정신과 환자 기숙센터, 달네에 중학교 등이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신인 블라디미르는 제9동양어문학교를 마치고 극동연방대학교 사할린 분교에서 경제 응용정보학을 전공했다. 최우등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 '베들레헴'회사(떡집, 여행사/의료관광, 항공 티켓 판매 등)에서 선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2년간 활동했다. 여기에서 여러 경험도 많이 쌓았다.

"어느 날 아버지가 연락해 지인의 회사에서 새 직원을 뽑는데 가볼 생각이 없냐고 하셔서요. 존경하는 지인이고 사업에서 성공한 분이

라서 아버지가 이 회사를 추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하러 가는데 제가 대학 최우등 졸업장이 있다고 하니 바로 통과되었어요."라고 블라디미르가 웃으면서 지난 일을 얘기했다.

그는 생산기술부에서 엔지니어로 활약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 전문가가 되고 싶어 사할린 국립대에 입학하여 산업 및 토목 건설을 전공했다. 일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재미있었다고 한다. 첫 대학교육을 받고 졸업한 적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대학은 3년반 만에 졸업할 수 있었다. 졸업하자마자 그는 생산기술부 부장으로 발령됐다. 최근 2년은 수석 엔지니어로 활약하고 있다.

"건설 작업은 매우 흥미로워요. 동시에 이 일은 매우 책임감을 요합니다. 매일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이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장 축지사부터 전력기술사까지 어떤 일이든 맡아서 할 수 있거든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끊임없는 열망은 전문적으로 발전시킨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권 블라디미르가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해 말했다.

그는 매우 바쁜 사람이다. 주문에 따라 공사 현장이 섬의 여러 곳이라 출장도 잘 나가고, 휴일 없이 거의 매일 출근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를 때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바쁘다고 한다. 다만 될 수 있는 대로 점심은 집에서 먹으려 한다. 사무실에

서 차로 사는 집까지 얼마 걸리지 않아서 가능하고, 아내가 준비하는 식사를 먹는 것이 때로는 하루의 낙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아내와는 6년 전에 <브 콘타테>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비대면으로 첫 인사를 나누고, 2개월 후 처음 직접 만나서 좋아하게 되었고, 4년 사귀다가 2년 전에 결혼했다. 몇 년간 이들을 지켜봐온 필자는 젊은 부부가 서로 배려하는 것이 아름다워보인다.

바쁘면 바쁠수록 하는 일이 많아진다.

얼마 전에 인테리어 디자인에 빠진 블라디미르는 본업 외에 최근 2년 이상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약하고 있다. 이 일은 저녁 7시 반에 퇴근 후 한다.

"공간 계획에서 3D 시각화에 이르기까지 현대적인 스타일의 디자인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저는 천성적으로 매우 창의적인 사람이거든요. 미학과 완벽주의를 좋아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계획한 것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14살 때부터 그래픽 디자인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이 열정과, 건축을 하면서 쌓은 경험이 저를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라고 블라디미르가 말했다.

그가 리모델링 했던 인기있는 레스토랑 중에는 소호(The Soho), 코바(KOBA - 코리안 바베큐) 등이 있다. 그는 레스토랑과 같은 케이터링 시설을 포함하여 많은 설비 대상을 설계하고 있다. 주문이 꽤 많이 들어 오고 있는데 본업 때문에 거절도 많

이 한다고 한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블라디미르의 장점은 디자인 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실제로 옮길 수 있는지 알고 있고, 어느 단계에서든 설계의 진행을 점검할 수 있고, 다음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할 수 있다.

블라디미르의 꿈은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를 만드는 것이다. 스튜디오는 우애가 남다른 친형과 함께 할 계획이라고 한다.

창의적인 사람으로서, 항상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블라디미르는 한 자리에 그냥 머물지 못한다. 그의 취미도 그렇다.

"저는 음악을 아주 좋아해요. 전문적으로 음악을 배우지 않았는데 리듬 감각을 피로 느낀다고 할까요. 대학 1학년 때부터 거의 8년간 디제이(DJ)로 활동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모스크바에서 사할린으로 초청한 이름난 디제이들과 많은 교제를 했습니다. 제가 활동하는 당시에 우리 도시에 인기있는 모든 나이트클럽에서 음악을 틀어주셨거든요. 손님을 보고 '이들에게 오늘 어떤 음악이 필요한 가란 것을 바로 알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아주 가끔 디제이로 초대되곤 합니다. 곧 코르사코브 한 클럽에 출연할 예정입니다."라고 블라디미르가 뜻밖의 취미를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8세부터 배운 수영도 계속 하고 있다. 다행히 밤늦게까지 갈 수 있는 수영장이 있어서 일주일에 2-3번 가고 있다고 한다. 가지 않으면 몸이 근질근질하다며.

당구에도 관심이 많다. 당구가 뇌

에 아주 좋고, '당구가 교제'라는 말도 있다고 한다. 8년 정도 당구를 친 블라디미르는 당구 경기에도 참가하고 있다.

그의 또 하나의 취미는 농구다. 아마추어로 게임을 하고 프로 농구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첫 전공인 컴퓨터 기술도 잊어버리지 않았다. 한때 그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크게 성장하고 싶었다. 특히 형과 함께 처음 한국 여행 갔을 때 나중에 한국(학교에서 한국어 배웠음)에 정착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에 전념하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건축에 관심이 생겨서 이 꿈은 포기했고, 그래도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욕심은 아직은 버리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는 '불가능한 일은 없다'이다. 그러니 그가 앞으로 원하는 꿈들을 이룰 수 있을지 않을까?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양한 방면에서 성공할 수 있다. 30대 초반의 권 블라디미르가 그런 사람이라 본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사할린 여성, 전 러시아 북방 다종목 경기에서 준우승 차지

오하 출신의 예카제리나 이리츠는 북방 다종목 경기 러시아 대표팀 선수로서 스포츠 장인의 표준을 달성하여 북방 다종목 경기 러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예카제리나와 동향 선수인 다리야 왈레예와, 마트웨이 예린도 사할린 대표팀으로서 경기에 참가했다.

경기는 한티만시이스크 자치구의 벨로야르스크에서 열렸다.

북방 다종목 경기는 북방 소수민족 원주민들의 전통 스포츠로서 5개의 종목으로 구성돼 있는데 썰매들 뛰어넘기, 도끼 멀리 던지기, 막대 잡고 산악 지형 달리기, 삼단뛰기, 튜잔(뱃줄 올가미)을 목표지점인 호레이에 던지기가 있다.

마지막 종목은 북방 민족의 오래된 작업인 순록 사냥과 관련이 있다. 튜잔은 순록 사육자들이 올가미 뱃줄 문치로 순록을 잡는 특수 뱃줄 올가미다.

올가미를 정확히 던지는 것이 참가자들에게 주어진 시험으로 경기에서는 튜잔을 목표지점인 호레이에 던져야 한다. 호레이는 사슴을 물기 위한 특별한 막대이다.

앞으로 사할린 대표 선수들의 계획은 북방 다종목 경기 러시아컵 대회참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Сахалинка стала вице-чемпионкой всероссийских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 северному многоборью

Член сборной России по северному многоборью Екатерина Ирич из Охи стала серебряным призёром чемпионата России по северному многоборью, выполнив норматив мастера спорта. Также в сахалинскую команду вошли её земляки - Дарья Валеева и Матвей Ерин.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шли в Белоярске в Ханты-Ман-

сийском автономном округе.

Северное многоборье — это традиционный вид спорта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которое состоит из пяти дисциплин: прыжка через нарты, метания топора на дальность, бега с палкой по пересечённой местности, тройн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ыжка и метания тынзяна на хорей.

Последний вид связан давним занятием народов Севера — охотой на оленей. Тынзян — специальный аркан, при помощи которого оленевод отлавливает животное. Метание его на точность — экзамен для пастуха. На состязаниях тынзян нужно набросить на хорей — специальный шест, которым погоняют оленей.

В ближайших планах у сахалинских спортсменов подготовка к Кубку России по северному многоборью,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спорта.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함께 한다!> 국민우호 축제, 유즈노사할린스크 1호 학교에서 개최

유즈노사할린스크 1호 학교가 예술, 연기, 연출 방면에서 학생들과 함께 창작 활동수업을 진행한 가운데 사할린 체호브 국제극장 센터가 이 기획 진행에 협력했다.

여배우 나탈리아 사르코와, 타치야나 막시모와는 2주간에 걸쳐 예술적 대사, 연기력, 무대 동작에 따른 수업을 진행했다고 체호브 센터가 전했다.

학교 측에서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다양한 민족의 학생들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4월 1일부터 몇 가지 상징적인 행사들을 진행했다. 5학년-7학년의 학생들은 <우리 학교 국민들의 문화> 라는 세계일주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전통과 풍습을 탐구하고, 다양한 노래와 춤도 익히며, 게임을 접하고, 문양 그리기도 하면서 <국민들의 상징 설명>이라는 벽보 전시회도 열었다.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함께 한다!> 국민우호 축제로 대규

모 기획에 따른 일련의 행사들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이 축제는 사할린주 문화·고문서부와 주 교육부의 지원으로 조성되었다.

Фестиваль дружбы народов «Мы – разные! Мы – вместе!» состоялся в школе № 1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школе № 1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прошли творческие мастерские с учениками п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му, актерскому и режиссерск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Партнером проведения проекта выступил Сахалин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театральный центр им. А.П. Чехова. Актрисы Наталья Шаркова и Татьяна Максимова на протяжении двух недель проводили занятия п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му слову, актерскому мастерству, сценическому движению,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Чехов-центра.

С начала апреля в школе прошло несколько знаковых мероприятий,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укрепление дружественны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учениками разны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обучающихся в этой школе. Мальчишки и девочки 5-7 классов участвовали в кругосветке «Культура народов нашей школы», они изучали традиции и обычаи, разучивали песни и танцы, знакомились с играми, рисовали орнаменты.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выставка стенгазет «Символы народов с поясным знаком».

Фестиваль дружбы народов «Мы – разные! Мы – вместе!» стал завершающим этапом в цикле мероприятий большого проекта. Фестиваль состоялся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하프마라톤 <러시아 연방, 달리기>에 사할린 주민들 참가 권유

<러시아 연방, 달리기> 전국 하프마라톤 대회 공식 체육 행사가 2022년 5월 22일(일)에 사할린주에서 거행될 예정인 가운데 참가 등록이 이미 시작되었다. 사할린에서 하프마라톤 대회는 벌써 3회째 진행되고 있다고 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8면에 계속)

한글은 우리 희망과 자랑

미스엔 미스터 "블라디보스톡 국립 경제·서비스 대학교- 2022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발레리아라고 합니다. 블라디보스톡 국립 경제서비스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2학년생입니다. 영어와 한국어 두 가지 외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는 <<2021년-미스&미스터 블라디보스톡 국립 경제서비스 대학교>> 콩쿠르 행사의 우승자가 되었으며 올해는 <<블라디보스톡 국립 경제서비스 대학교- 2022년>> 콩쿠르 행사에 특별 초청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참가자들이 준비하는 과정을 아주 흥미롭고도 주의깊게 지켜봤습니다. 이번 콩쿠르 행사는 대규모로 진행됐으며 많은 내빈여러분과 심사위원회가 초청되었습니다.

올해 콩쿠르 행사의 주제는 <사랑의 진화> 라는 뮤지컬 내용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사랑의 종류를 콩쿠르 행사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공연은 매우 감동적인 뮤지컬로 만들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의 아름다운 연기력을 보며 눈물이 솟구치기도 했습니다.

콩쿠르 개막식과 폐막식에서 우리 댄스그룹이 출연했습니다. 내가 두 팀의 참가자였기 때문에 먼저 <<1054>> 제 1 춤 팀과 함께 출연하고나서 제 2 <<슬리핑 비스트>> 팀과 함께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커버댄스를 하기 때문에 <<ITZY-LOCO>>라는 댄스를 선보였습니다.

중요한 이벤트에 초청을 받은 특별 손님으로 참여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새롭고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키릴로바 발레리아 (블라디보스톡 국립경제 서비스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신PD의 K 리포트]

말싸움의 최고 기술, 春風秋霜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 형태의 사회 집단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지지고 볶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회학 용어를 빌면, '협동', '경쟁', '갈등'의 세 가지 상호작용 양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가족, 학교, 회사, 친목 모임, 동네, 국가 등 다양한 집단 속에서 사람들끼리 편을 만들고, 좋은 것을 먼저 차지하려 애쓰고 또 그런 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무인도에 혼자 사는 로빈슨 크루소가 아닌 한 이런 현상은 필연적이며 또 여기에 부수되는 '말싸움'의 상황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싸움'이라고 불려서 거북할 수 있지만, 이것을 논쟁이라 하든 토론이라고 포장하든 어쨌든 그것은 싸움의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싸움의 상황을 맞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그 상대가 사랑과 행복의 추억을 쌓는 '1차 집단' 가족이든, 정서적 공감대가 약한 회사 같은 '2차 집단'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기고 싶어 합니다.

30여년 회사생활 해오면서 저 나름대로의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몸담고 있는 회사가 공영방송사이고 구성원들 대부분이 내세울만한 스펙들을 쌓아온 터라 먹살잡이 같은 물리적 충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로 하는 싸움이나 갈등에서는 치열합니다. 그것이 조직의 건강한 발전과 콘텐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숭고한 목적이라 해도 어쨌든 그 드러나는 양상은 뜨겁습니다.

제가 주로 쓰는 노하우는, 템포 조절입니다. 저나 상대방이나 나를 타당한 명분과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서 한치의 양보가 없기 쉽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무조건 맞다'이지만, 심판을 세워두고 본다면 제 의견이 그렇게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객관화하지 않고 자기애에 빠져 '유아독존(唯我獨尊)'하게 됩니다. 이럴 때 저는 잠깐 말을 멈추고 다음 이어지는 발언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분위기를 식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입 다물기'라고 부르는데, 영어 표현인 'Hold Your Tongue'로 써서 구호처럼 마음속으로 늘 되뇌입니다. 남들이 알까 신경 쓰여서 'H.Y.T.'라고 앞글자만 따서 마치 무슨 암호인양 책상 앞에 붙여놓습니다. 논쟁이 과열될 때 잠시 분위기를 식히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상대방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면서 잠시 시간을 버는 겁니다. 그렇게 얻은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상대방의 약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공격점을 찾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의 주장을 다시한번 합리화시키면서 단단하게 엮어냅니다. 저는 'H.Y.T.'를 제 사회생활의 '치트키(Cheat Key)'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최근 고(故) 신영복 교수님의 책 <담론>을 읽던 중 몸이 휘청일 정도로 자각을 했습니다. 바로 아래 여덟 글자 덕분입니다.

待人春風 持己秋霜 (대인춘풍 자기추상)

<채근담(菜根譚)>에 나오는 이 말은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春風)처럼 너그럽게 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는 가을 서리(秋霜)처럼 엄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신영복 교수님은, 여러 만남 - 타인과의 만남, 자신과의 만남 - 등에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이 경구를 인용하셨습니다. 여행의 목적 중 하나가 자신을 잠시 떠나는 것인데, 돌아왔을 때에는 자신을 낯설게 그리고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는 뜻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아주 잠깐의 여행이라도 떠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가을 서리'처럼 대하면서 객관화하는 기회를 갖자는 교훈입니다.

제가 말싸움 비법으로 자랑한 Hold Your Tongue - '입 다물기'도 타인과의 논쟁 중 아주 잠시 여행을 떠나듯 그 상황을 객관화하는 과정일 겁니다. 다만, 저는 그 틈에 제 주장을 더 강하게 내면화하면서 상대의 약점을 찾아 다시 공격할 기회를 모색했습니다. 잠깐의 템포 조절을 하면서 나에게 내려야 했을 서릿발을 상대로 향했을 것이구요.

잠시 멈춘 채 '혀를 입안에 가두고' 달궈진 분위기를 식히는 것은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춘풍(春風)을 날려주며 주관적 자신감을 강화하는 속도조절이었다면 얇은 테크닉에 불과합니다. 잠시 멈춰서 추상(秋霜)같은 엄격함으로 나를 돌아보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H.Y.T. 보다 더 크게 春風秋霜을 써서 책상 앞에 붙여놓기로 했습니다.

신원섭 (KBS 라디오 제작국장. shinwonsup@kbs.co.kr)

사할린의 삼림 화재 방지에 약 5억 루블리 배정

올해 화재 다발 시기에 대한 대비가 일찍이 시작된 가운데 이 중 연방 예산은 1억6천3백만 루블리이다. 이번에 기존의 400km 이상의 소방도로를 운영하고 30km 이상의 새 소방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주거지와 경계를 이루는 산림에는 260km의 배수구가 조성된다. 계획상으로는 500헥타르의 건초를 태우고, 100곳의 휴식처를 정비하며, 400여 개의 화재 방지 게시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올해 산불상황 모니터링은 항공 및 위성을 통해, 그리고 지상으로도 실시간 한다. 5개 항공 순찰 노선 총 2,434km와 지상 순찰 노선 5,157km를 확정했다. 산불 상황 24시간 보고 및 분석은 지역 사할린 공군기지 지역 통제 서비스 직원

들이 담당하고 연방 산림청의 원격 분석 정보 시스템이 적용된다. 지상에서는 산림청 직원들과 산불진화대원들이 모니터링한다.

네 대의 항공기가 사할린의 산림을 순찰하게 된다. 올해 삼림 화재 진화대원들은 29명이고, 헬기 소방대원은 9명, 삼림 화재 진압대원은 184명이다.

주 소방기관의 특수장비로 삼림 화재 진압장비는 185대이다.

4월에 사할린주 푸쉬스티 간이비행장에서 소방대와 비상대책부의 지휘로 화재 지역 주민 보호와 안전 지역으로 주민 이송에 따른 산불 진압 대규모 훈련이 실시되었다.

'2022 한글학교 교사연수' 참가자 모집 4월 20일(수)부터 5월 22일(일)까지 코리안넷(www.korean.net)을 통해 개별 신청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언택트 시대에 대응하여 '2022년 한글학교 교사연수'를 온라인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참가자 모집을 4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

동 연수는 현직 한글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수업을 맡고 있는 교장과 교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총 450여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1차 연수는 8월 15일~21일, 2차 연수는 8월 24일~30일, 두 차례로 나눠 실시될 예정이다.

올해 연수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방식으로 시행되며, 교사들의 사전 요구를 분석하여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한국의 역사·문화에 대한 집중연수와 세계시민교육, 최신 온라인 교육 트렌드 등 한글학교 맞춤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코리안넷(www.korean.net)을 통해 개인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코리안넷 및 스터디코리안(study.korean.net)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곤 이사장은 '한글학교의 역량은 한글학교 선생님들의 역량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교사연수에 많은 선생님이 참여하시어 우리 동포 자녀들이 글로벌 코리안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루코모리에'유치원 개원



330명의 유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루코모리에' 유치원이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달네에 마을에서 개원했다.

이 유치원은 현대적 요구사항에 따라 설계되고 건설되었다.

유치원에는 수영장, 체육관, 강당, 다양한 방면의 보충교육 단체를 위한 별도의 교실이 갖추어져 있다. 유치원의 총면적은 4,700m²로 각 그룹을 위한 교실 말고도 음악실, 체육관, 3x7m의 수영장, 그림 수업을 위한 원형 교실이 있고, 간호실, 식당, 세탁실, 엘리베이터도 갖추어져 있다. 유아들이 뛰노는 마당에는 놀이마당, 미니 축구 경기를 위한 마당, 달리기 마당, 2개의 온실이 있다.

"여기에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두 그룹 구성에 대한 계획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들에게 언어 치료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전에 달네에 마을에는 이런 것이 없었다. 주에서 유치원으로서의 시설 완비율은 100%이다. 이는 사립 유치원과 가정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과 2세 이하의 유아들 덕에 이뤄낼 수 있었다."고 사할린주 교육부장관 아나스타시야 키르테와가 말했다.

올 연말까지 사할린 지역에 2개의 취학 전 아동교육 기관이 개원한다. 하나는 노브 마카롭스키 구역에 40명을 수용할 유치원, 티몹스크 구역의 키롭스코에 마을에 60명을 수용할 유치원이라고 주정부가 전했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На Севере идёт подготовка к военному параду

На Севере завершается подготовка к крупномасштабному военному параду. Эксперты пришли к такому выводу после анализа спутниковых снимков, сделанных 17 апреля компанией Planet Labs. На снимках видны примерно 12 тыс. человек, находящих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учебного полигона аэродрома «Мирим» в Пхеньяне. В тот же день большое скопление людей зафиксировано на площади имени Ким Ир Сена, где 17-18 апреля были установлены большие палатки. Между тем, на интернет-сайте 38 North размещено сообщ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17 апреля на площади репетиции парада с участием нескольких тысяч военных и десятков единиц боевой техники. На следующей день порядка 20 военных самолётов и 10 вертолётов были выстроены на взлётно-посадочной полос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аэропорта «Сунан»,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оенные полагают, что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идёт подготовка к празднованию 90-летия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армии, которое будет отмечаться 25 апреля.

KBS World

Япония продолжает распространять дезинформацию об островах Токто

МИД Японии несколько лет распространял свою позицию по южнокорейским островам Токто в Восточном море через доменный адрес Tokto.com, в котором Токто указано корейскими буквами (독도.com). При этом в Японии эти острова, на которые Токио постоянно высказывает свои территориальные притязания, называют Такэсим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если написать в окне поиска 독도.com, то появляется ссылка на страницу, посвящённую островам, на сайте МИД Японии. Там изложена традиционная позиция Токио о том, что Токто - это исконно японские территории, незаконно занятые РК. Также там представлены видеоматериалы аналогичного содержания на 12-ти языках, включая корейский. То есть, японский МИД вводил в заблуждение людей, интересовавшихся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островами. В МИД Японии, между тем, сообщают, что не имеют к этой ситуации никакого отношения.

KBS World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Старость в радость

В любом возрасте человек стремится жить безопасно и комфортно, а пожилые люди особенно нуждаются в этом. Годы молодости, обще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семейных забот остались позади, и старики начинают испытывать одиночество и беспомощность.

Для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 пожилых людей был создан Дом престарелых (пансионат) «Ариран», расположенный в махалле «Ахмад Яссавий» Юкоричирчикского района Ташкентской области.

Как живётся пожилым людям в пансионате? Как сюда попадают? Как решён вопрос с питанием? Чем занимаются? На эти и другие вопросы постараемся ответить в этой статье...

На конец 2021 года число проживающих в «Ариране» составляло 31 человек. Жизнь его постояльцев очень активная. Утро начинается с измерения артериального давления, пульса и температуры тела. Затем — утренняя зарядка, завтрак, обязательные занятия в тренажёрном зале. Для досуга пожилых людей предусмотрены разнообраз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активные игры, аэробика, аутотренинг, поделки из бумаги, просмотры фильмов, турниры по настольным играм. Особенно бабушкам пришлось по душе караоке: они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поют корейские и русские песни. В общем, скучать не приходится, да и некогда, особенно, когда проходят занятия по математике и чтению, различные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е игры. Всё это преследует одну цель — как можно дольше сохранить физическое и психическое здоровье опекаемых. Преимуществом жизни пожилых людей в доме престарелых является круглосуточная медицинская помощь, что особенно актуально, так как у многих из них имеются хронические заболевания.

Ежегодно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 жителям пансионата Международный не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й фонд Соглом Авлод Учун. Так, в марте на базе медико-социального центра фонда медицинский осмотр прошли все подопечные и сотрудники.

Особо следует остановиться на питании в «Ариране»: пища должна быть вкусной, полезной, разнообразной, сбалансированной с учётом возрастных изменений организма. В основном, это домашние блюда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 рыба, овощные салаты, много зелени, фрукты; в меню также включены и блюда других национальных кухонь, их перечень — внушительный. Повара учитывают все пожелания подопечных.

Что касается проживания, то к услугам пожилых людей — уютные комфортные комнаты на двух человек, оснащённые всем необходимым. По желанию опекаемые сами обустривают свой быт, могут приобрести холодильник, телевизор и другую бытовую технику. Для немобильных постояльцев в доме созданы особые условия и имеются необходимые средства передвижения: поручни, функциональные кровати, ходунки, кресла-коляски, лифт в двухэтажном здании, — всё это существенно облегчает им жизнь.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й район, зелёные насаждения, удобные дорожки и скамейки позволяют совершать пешие прогулки вне стен заведения.

Руководство пансионата «Ариран» проявляет заботу не только о своих подопечных, но и уделяет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жителям махаллы «Ахмад Яссавий» —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диаспоры, пережившим переселение 1937 года и одиноким нуждающимся пожилым людям. Ежегодно проводятся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е акции, в ходе которых им вручаются продуктовые наборы (мясо, сахар, растительное масло, мука, рис, чай).

Успеш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дома престарелых достигается многими факторами: финансированием, благоприятным психологическим климатом,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ом сотрудников. Коллектив «Арирана» видит свою первоочередную задачу в обеспечении людей преклонного возраста защищённости, уверенности в завтрашнем дне, продления их жизненной активности и веры в собственные силы.

P.S. Необходимо отметить работу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содействующей в оформлении документов в дом престарелых пожилым людям, оставшимся без попечения



родственников и нуждающимся в заботе.

Особая благодарность —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Корейцы Узбекистана» за ежегодную публикацию о деятельности Дома престарелых и Клуба корейски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KoryoIn», оказывающему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ую помощь пансионату.

Дом престарелых «Ариран» является филиалом Корей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фонд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амяти доктора Ли Джонга КОФИН.

В 2021 году Фонд КОФИН на содержание Дома престарелых выделил 314717,18 долларов США. Конвертация в национальную валюту производилась по курсу биржевых торгов через Национальный Банк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В 2021 году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20 годом объём выделенных средств вырос почти на 28%, что позволило увеличить размер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сотрудникам, улучшить и разнообразить питание подопечных. Немало средств было израсходовано на ремонт 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здания и прилегающей территории, дополнительно закуплены необходимые основные средства и оборудование. Также израсходованы средства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в доме престарелых.

В 2021 году из общей суммы расходов в 3 772,6 млн. сум. потрачено на:

- заработную плату сотрудников — 1198,1 млн. сум. (31,8%);
- налоги и отчисления в бюджет — 366 млн. сум. (9,7%);
- приобретение основных средств — 118,6 млн. сум. (3,1%);
- закуп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инвентаря и расходных материалов — 557,7 млн. сум. (14,8%);
- коммунальные услуги: газ, электроэнергия, вывоз мусора, интернет-услуги и связь — 142,2 млн. сум. (3,8%);
- содержание, ремонт здания, автомашин и оборудования 641,4 млн. сум. (17,0%);
- прочие расходы — услуги банка, страхование, дезинфекция, медосмотры и медицинские услуги и т.д. — 748,6 млн. сум. (19,8%).

На техническое сопровождение медицинс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в Узбекистане со стороны голов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в 2021 году выделено 95522,85 долларов США, конвертировано и израсходовано 1111,7 млн. сум. на покупку основных средств, инвентаря, расходных материалов, за аренду автомобиля и офиса в г. Ташкенте, а также расходов по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перспективе, на базе существующих зданий и сооружений, возможно, будут реализованы и другие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е проекты, которые в данное время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Для проживания в дом престарелых «Ариран» принимаются этнические корейцы, участвовавшие в переселении в 1937 году; одинокие пожилые люди старше 75-ти лет, испытывающие материальные трудности и тяжёлые условия проживания. Люди с психическ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и явными физическими недостатками не принимаются.

Источник: «Корейцы Узбекистана» № 7(59)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С 18 апреля в РК отменяются меры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риняло решение отменить с 18 апреля действующие меры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15 апреля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К Ким Бу Гём. Таким образом, снимаются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время работы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ъектов, а также на допустимое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личных встреч. С 25 апреля будет снят запрет на употребление пищи в кинотеатрах и други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ъектах. Масочный режим пока решено сохранить. С конца мая будет полностью отменён семидневный обязательный карантин для пациентов с COVID-19. Принято также решение перевести COVID-19 с первого на второй уровень в списке инфекцион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что позволит пациентам получать лечение во всех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При въезде в РК из-за границы нужно будет сдать только один тест полимеразной цепной реакции (ПЦР) в день прибытия. При этом сохраняется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редъявления при въезде отрицательного результата теста, сделанного в течение 48 часов до вылета в РК. Все вакцинированные при въезде в РК будут освобождены от семидневного карантина.

РК и США начали командно-штабные учения

18 апреля вооружённые силы РК и США приступили к совместным командно-штабным учениям, которые продлятся по 28 апреля. Как сообщили накануне в Объединённом комитете начальников штабов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РК, учения проводятся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компьютерного моделирования без полевых манёвров.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повышение совместных оперативных возможностей южнокорейских и американских войск, они помогут укрепить взаимную оборону союзников. Будет отработан совместный план действий в непредвиденных обстоятельствах, включая отражение атаки потенциального противника. Пхеньян давно критикует учения как «репетицию вторжения» на Север, хотя Сеул и Вашингтон постоянно подчёркивают, что регулярные учения носят оборонительный характер.

В РК состоится 12-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детский марафон

С 5 по 7 мая в РК пройдёт 12-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детский марафон. По данным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пасите детей»,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15 апреля, заявки на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и подали более 10 тыс. человек. Впервые марафон прошёл в 2011 году в Сеуле. Тогда в нё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3 тыс. человек. С 2017 года он проводится в других городах страны. С 2020 года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ходит в бесконтактном формате Run+Untact. Три года подряд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превышает 10 тыс. человек. В рамках формата Run+Untact участники могут пробежать определённую дистанцию в любое время, подтвердив данный факт онлайн. В этом году забег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 9 городах - Сеуле, Пучхоне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Тэчжоне, Чонджу провинции Чолла-Пукто, Начжу провинции Чолла-Намдо, Тэгу, Ульсане, Пусане и Кимхэ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Намдо. Там будут размещены офлайн пункты, где можно сделать памятное фото 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различных акциях. Марафон подготовлен организацией «Спасите детей», новостным агентством Yonhap,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Чонджу и Кимхэ при поддержке Hyundai Motor. Целью мероприятия является сбор средств для борьбы с детской бедностью. Все собранные деньги пойдут на поддержку малых народов Вьетнама.

Мэрия Сеула выделит беременным женщинам по 700 тыс. вон

Мэрия Сеула выделит беременным женщинам по 700 тыс. вон (570 долларов) на транспортные расходы. Как было объявлено 13 апреля, данные средства будут начисляться на банковские дебетовые и кредитные карты операторов, сотрудничающих с мэрией. Их можно будет потратить на оплату проезда в метро, автобусах и такси, а также при покупке топлива для личного автомобиля. Выплаты начнутся 1 июля, когда будет запущена онлайн-система подачи заявок. Проект инициирован в рамках предвыборных обещаний мэра Сеула О Сэ Хуна. Выплаты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женщины, живущие в Сеуле не менее чем полгода до запуска проекта. В мэрии ожидают, что заявки подадут около 43 тыс. человек.

Южная часть горы Пугаксан открыта для посещения

6 апреля снят запрет на посещение южной части горы Пугаксан в центре Сеула. Находившиеся там заброшенные военные объекты и металлические ограждения частично демонтированы. Патрульные маршруты преобразованы в прогулочные дорожки. Северная часть горы была открыта в ноябре 2020 года. В итоге практически вся гора открыта для свободного посещения впервые с 1968 года, когда вооружённы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диверсанты проникли на территорию резиденции президента. По соображениям безопасности для посещения закрыты лишь небольшие участки. (RKI)

В Южной Корее пройдет общенациональный конкурс по русскому языку среди студентов

В Южной Корее состоится общенациональный ежегодный конкурс по русскому языку среди студентов местных вузов. Организатором мероприятия, которое проводится каждый год, начиная с 2011 года, выступает Институт россий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при Университете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Хангук и посо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В этом году в связи с пандемией коронавируса конкурс проводится в формате онлайн. Согласно правилам, желающие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из числа студентов факультетов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Кореи должны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снять видеоролик по заданной теме и отправить его на почту отборочной комиссии.

Финал конкурса пройдет 20 мая. По заведенной традиции, каждый год выбирается различная тема для конкурса. На этот раз он посвящен 150-летию юбиле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известного российского географа, исследовател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ладимира

Клавдиевича Арсеньева.

Победителей ждут хорошие призы. Участник, занявший 1 место, будет награжден авиабилетами Сеул-Москва туда и обратно (или денежным призом). Участники, занявшие со 2 по 4 место, получают денежные призы, а остальным четырем участникам будут вручены памятные сувениры от Посольства РФ в РК. Также все участники конкурса получают грамоты от российского посольства.

С подробной информацией о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мож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на сайте Института россий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Хангук. Как отмет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уза, одной из главных целей подобного рода мероприятий является развитие навыка у участников вести дискуссии на иностранном языке для решения различных жизненных задач.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 Федеральный выпуск
№ 85(8733)

Исполнилась восьмая годовщина трагедии парома «Сэволь»

16 апреля исполнилось восемь лет с момента трагедии, произошедшей недалеко от юго-западного побережь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Катастрофа парома «Сэволь» унесла жизни более чем трёхсот человек. В ознаменование трагической даты в РК прошли памятные церемонии.

Одна из них состоялась в Инчхоне, откуда паром «Сэволь» отправился в свой последний рейс на остров Чечжудо. Ещё одна церемония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на палубе судна в открытом море, где произошла трагедия. В ней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родственники погибших.

В тот же день памятная церемония прошла в городе Ансане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где находится школа Танвон высшей ступени. В ней учились большинство погибших в результате катастрофы.

Выступая на церемони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К Ким Бу Гём принёс извинения за то,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е смогло предотвратить катастроф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не смогло защищать жизнь граждан страны» - ска-

зал Ким Бу Гём.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призвал продолжить усилия по установлению причин затопления парома «Сэволь» в 2014 году.

«Причины гибели парома «Сэволь» до сих пор не выявлены», — написал Мун Чжэ Ин в своих аккаунтах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по случаю восьмой годовщины инцидента. Он добавил, что раскрытие правды о катастрофе необходимо для создания основ безопасности страны.

Избранный президент Юн Сок Ёль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лучшая дань памяти о жертвах катастрофы – сделать РК безопасной страной.

Паром «Сэволь» затонул 16 апреля 2014 года к юго-западу от острова Чиндо по пути из порта Инчхон на остров Чечжудо. На борту находилось 476 пассажиров и членов экипажа. 304 человека погибли. Большинство пассажиров составляли школьники и учителя школы высшей ступени «Танвон». Пять человек продолжают числиться пропавшими без вести.

KBS World

Амнистированный экс-президент возвращается в политическую жизнь страны

Сеул, 17 апреля – ИА РУСКОР

Бывший президент Южной Кореи Пак Кын Хе открыто поддержала кандидатуру мэра своего родного города Тэгу на июньских местных выборах, что стало ее первым политическим шагом с момента возвращения в родной город в прошлом месяце после президентского помилования.

Пак, которая была помилована в декабре после того, как провела четыре года и девять месяцев в тюрьме по 22-летнему приговору за коррупцию, появилась в видеоролике YouTube, чтобы заявить о своей поддержке адвоката Ю Ен Ха из Народной партии власти, который считается ее ближайшим помощником.

«Ю стоял рядом со мной в последние пять лет, это было самое трудное, болезненное время для меня», — сказала Пак. — «Хотя я не реализовала все мечты,

которые хотела реализовать, я верю, что Ю достигнет их от моего имени в моем родном городе и его родном городе Тэгу».

Этот шаг произошел через две недели после того, как она была выпущена из больницы и вернулась в свой родной город впервые с момента ее заключения. Затем бывший президент заявила, что планирует внести «все, что у меня есть», чтобы помочь талантливым людям работать на развитие Тэгу и страны.

Ожидается, что одобрение Пак окажет некоторое влияние на выборы мэра, поскольку она получила сильную поддержку избирателей в Тэгу, оплоте консервативного блока.

Помимо Ю, среди претендентов на пост мэра Тэгу — ветеран-законодатель Хон Чжун Пе, который ранее баллотировался на президентских праймериз, и бывший член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партии Ким Чжэ Вон.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Реклам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2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месяц — 92 руб. 8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олинская больница возобновила работу в виде многопрофиль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Все стационарные отделения Долинской ЦРБ вновь функционируют в штатном режиме. Такая возможность появилась после улучшения в области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и по коронавирусу. После снятия статуса «временного инфекционного госпитал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санитарными требованиями в больнице провели дезинфекцию, было получено положительное заключение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а. Сейчас лечение там проходят около 100 пациентов.

Первым пациентом Долинской ЦРБ после открытия стационара в штатном режиме стал местный житель с травмой живота, поступивший после обращения в отделение скорой помощи. В этот же день мужчину прооперировали. Кроме хирургиче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в больнице функционируют все структурные подразделения – терапевтическое, педиатрическое, инфекционное, родильный дом и другие.

– Стационар рассчитан на 152 койки. Пациенты поступают постепенно. Сохраняется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ротивостоять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Для плановой госпитализации необходима предварительная сдача анализов на ковид. Наши медработники в течение двух лет боролись за жизни людей, имеют колоссальный опыт работы с особо опасной инфекцией и продолжают делать все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предотврати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заболевания, – рассказал главный врач Долинской ЦРБ Валерий Шарыкин.

В качестве временного инфекционного госпиталя Долинская ЦРБ стала работать два года назад. При принятии этого решения учитывалось месторасположение, наличие лабораторной базы, диагностическ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возможность оказания различных видов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Подавляющее большинство сотрудников больницы остались в штате больницы для помощи больным с особо опасной инфекцией. Кадровый состав также был усилен добровольцами из медучреждений со всей области.

Заведующий терапевтическим отделением Михаил Широков вошел в коллектив больницы сразу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Амурской медакадемии. Молодой специалист – уроженец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и другого варианта, кроме как вернуться на малую родину, даже не представлял. Труд сотрудников Долинской ЦРБ был особо отмечен на встрече с директором лечебного департамент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Милой Тен.

– Два года в круглосуточном режиме, каждая 12-часовая смена – без возможности снять средства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защиты, в постоянном напряжении. Сотрудники Долинской ЦРБ достойно справились с выпавшим на их долю испытанием. За это время в адрес минздрава пришло множество обращений с благодарностями в адрес медработников, которые показали не только высочайший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 но и самые лучшие человеческие качества –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и милосердие, – отметила Мила Тен.

Для лечения пациентов, которым необходимо стационарное лечение от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развернуты койки в городской больнице имени Анкудинова 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ЦРБ. Основным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м средством от covid-19 остается вакцинация. Сделать прививку можно в поликлинике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и в любом из передвижных комплексов, которые установлены в каждом районном центре 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Дальнем открылся крупнейши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етский сад

Детский сад «Лукоморье», рассчитанный на 330 малышей, спроектирован и построен по самым современным требованиям. В учреждении есть бассейн, спортивный и актовый залы, отдельные помещения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различ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строителям, сделали работу очень качественно. Это огромный подарок жителям Дальнего,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ющегося район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Мы продолжаем строить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жилья – по 50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ежегодно. Тольк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290 тысяч метров было построен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римерно столько же будет построено и в этом. Вместе с тем продолжим строить и социальные объекты. Поздравляю малышей, их родителей и воспитателей с открытием детского сада, – выступил на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Не так давно мы здесь открывали новую школу и детский сад «Бусинка». И сегодня новый детсад. Это значит, что город растет, жителей становится больше, особенно юных. Жизнь движется вперед. Огромное спасибо строителям, в также губернатору и правительству области за поддержку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в развитии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ы. Уверен, что дети здесь будут в комфорте и уюте, родители будут спокойны, что их дети под опекой замечательных педагогов, а педагоги получают инновационную площадку дл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оста, – присоединился к поздравлениям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Общая площадь здания нового детского сада 4700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Кроме помещений для каждой группы предусмотрены музыкальный и спортивный залы, бассейн с чашей 3х7 метров, 2 кружковых помещения для занятий по рисованию. Помещения медицинского блока,

пищеблок, прачечная и лифт. На территории детского сада – прогулочные площадки, спортивная зона для игры в мини-футбол, беговая дорожка и садовая зона с двумя теплицами.

– Для нас очень важно, что здесь запланированы две группы для детей, которые имеют особы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отребности. Для них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а логопедическая помощь. Раньше в Дальнем такого не было. Особо отмечу, что сейчас обеспеченность детскими садами в области составляет 100 процентов. Этого удалось достичь благодаря различным мерам, в том числе поддержке частных садов и семей, малышам в которых еще нет двух лет, – рас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До конца года в регионе сдадут еще два дошко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 40 малышей примет детский сад в селе Новое Макаровского района, еще 60 дошколят отправятся в школу-детский сад в селе Кировское Тымовского рай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ручил ключи новоселам в Поронайске

В ходе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в Поронайский район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здравил новых жильцов дома на улице Фрунзе, 18. 40 семей бесплатно получили комфортные квартиры по программе переселения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 Я вижу сегодня искреннюю радость на ваших лицах и понимаю, что работа была проделана не зря. В России действует большая программа переселения, и наш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идет в ней первым. Нам удалось существенно нарастить объемы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чтобы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полностью закрыть проблему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люди задают мне вопрос, не помешают ли этому санкции. Скажу однозначно: все социальные объекты будем строить – в срок и качественно,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новостройке на Фрунзе предусмотрено 25 двухкомнатных квартир площадью более 50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и 15 – трехкомнатных площадью более 75 «квадратов». Ключи от квартир здесь получили не только жители Поронайска, но и сел: Малиновка, Леонидово, Забайкалец, Тихменево.

Елена Семенова с семьей переехала из аварийного дома на улице Московской в райцентре.

– Там мы прожили 30 лет. В подвале вода была постоянно. Первым этажам не позавидуешь. У соседней толки и стены сыпались. Никакой ремонт не сделаешь. В новой квартире мне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Большой плюс, что балкон есть. И ремонт хороший. Я к строителям заходила и когда стены штукатурили, и когда линолеум укладывали. Проверяла, чтобы все качественно сделали, – подели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Поронайска.

В каждой квартире новостройки запроектированы кухни с естественным освещением, имеется необходимое сантехническ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электроплита и водонагреватель. Квартиры сдали со свежим ремонтом – линолеум и обои в комнатах, кафельная плита в санузлах.

Новостройка оснащена пожарной сигнализацией, адаптирована к потребностям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Территорию вокруг дома благоустроили.

Отметим,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досрочно завершил программу расселения жилфонда, признанного аварийным до 1 января 2017 года. Это позволило региону претендовать на новую субсидию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С помощью этих средств будут улучшены жилищные условия тех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чьи дома были признаны аварийными уже после 1 января 2017 год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овоселье отметили 4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переезд более 5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сего в ближайшую пятилетку ключи от квартир получат около 30 тысяч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В нынешних условиях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берут строительную сферу и вопросы помощи ей на особый контроль, поскольку она является не только одним из крупнейших работодателей и налогоплательщиков, но и обеспечивает загрузку многих смежных отраслей.

В половине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уже заключены контракты на проведение работ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1000 дворов»

Подряд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определены в Томаринском, Анивском, Долинском, Корсаковском, Невельском, Ногликском, Смирновском, Поронайском и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ом районах. В остальны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объявлены конкурсные процедуры.

– Как только установятся благоприятные условия, подрядчики приступят к работам. Задача – создать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проживания для людей. К ее решению мы подходим комплексно: благоустраиваем дворы и скверы, капитально ремонтируем дома, приводим в порядок подъезды,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ЖК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Какие дворовые территории благоустраивать в этом году, выбирали сами жители. В опрос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1167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Адресный перечень участников проекта размещен на сайт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ЖКХ в разделе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Секретар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партии «Единая Россия», спике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Андрей

Хапочкин отметил, что «1000 дворов» – та программа, которая позволит провести комплексный ремонт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с обязательным учетом пожеланий и предложений жителей. Островные единороссы готовы проконтролировать ход ремонта, проследить за выполнением всех наказов сахалинцев.

– Для меня встречи с жителями округа во дворах – неотъемлемая часть работы. На протяжении многих лет я на выходных объезжаю придомовые территории, разговариваю с южносахалинцами о проблемах, фиксирую их, беру на контроль, и совместно с город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министерством ЖКХ решаем вопросы. Знаю, что так делают и коллеги по партии. И это очень удобный формат, на месте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проблемами, обязательно выслушать жителей и их пожелания. В итоге они получают именно тот двор, который всех устраивает – с лавочками, детской и спортивной площадками, пешеходными дорожками, зелеными зонами. Обязательно такая практика должна быть при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аммы «1000 дворов», будем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 подчеркнул Андрей Хапочкин, который также является региональным координатором партийного проекта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Программа «1000 дворов» запущена по инициативе вице-преьера –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в ДФО Юрия Трутнева. Она охватывает все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регионы. Программа призвана обновить городск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с применением совреме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создать пространства для отдыха рядом с домом. В рамках «1000 дворов» по просьбе жителей создаются площадки с оборудованием для игр и спорта, обустраиваются пешеходные зоны и велодорожки, производится озеленение территорий.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на ремонт дворов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лучит 418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Их направят на реконструкцию более 60 дворовых площадок.

Отметим, всего на островах по областной и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ам в этом году капитально отремонтируют 125 дворов. Кроме того,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текущий ремонт охватит не менее 700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Их приведут в порядок за счет бюджета области. Сообщить о ямах в своих дворах жител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могут с помощью Сахалин.онлайн. На портале можно отследить ход ремонта и оставить обратную связь по качеству проведенных работ.

Благодаря проекту «Добрые дела карты сахалинца» две невелиские семьи начнут собственное дело

Одной из заявителей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присоединившись к социальному проекту, поможет приобрести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производства выпечки, второй женщине – технику для швей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Одинокая женщина проживает с тремя детьми, один из которых нуждается в систематическ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Мама желает официально работать на дому, планирует открыть собственное дело по изготовлению и реализации кондитерской продукции после решения вопроса о лечении сына.

Вторая женщина, обратившаяся за помощью к губернатору Валерию Лимаренко, так же воспитывает ребенка-инвалида. Семья испытывает материальные трудности – значительные средства расходуются на специальное питание для девочки, ее лечение, лекарства и платные анализы. Мама желает заняться швейным производством на дому.

– Мы подходим к решению проблемы каждой семьи индивидуально. Обеим семьям со стороны профильных министерств 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Невельска будет оказана необходимая помощь – медицинская и социальная. Очень радует, что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бизнеса не остаются в стороне и всё больш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присоединяется к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му проекту по оказанию помощи семьям, оказавшимся в труд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Уже договорились с женщинами. С одной из них в ближайшие дни поедем в магазин и подберем духовой шкаф и печь. Сразу же заедем ко второй заявительнице и вместе определимся, как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ей необходимо, чтобы шить на дому. Это очень нужный социальный проект, будем его поддерживать, – поделилс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Сергей Белозеров.

Напомним, новый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й проект позволит скоординировать действия людей, которые нуждаются в помощи, и меценатов, которые желают оказать им адресную поддержку. Характер помощи будет определяться, исходя из насущных потребностей той или иной семьи – купить продукты, собрать детей в школу, приобрести мебель и бытовую технику.

Прием заявок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Добрые дела карты сахалинца»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с мая по октябрь этого года. Будут рассматриваться социальные практики 2021-2022 годов. Оценивать значимость инициатив будет экспертная конкурсная комиссия, состоящая из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лидеров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В финале победителей и лауреатов определят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на всенародном голосовани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재외동포재단, 국립국어원과 대륙별 한글학교협의회 간 소통의 장 마련

교육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 발전방안 모색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 현장의 의견수렴을 위해 한국어교육 전문 연구기관인 국립국어원(원장 장소원)과 대륙별 한글학교협의회 간의 '찾동(찾아가는 동포재단)·화상 간담회 자리를 4월 19일 마련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북미·중남미·아시아·대양주·유럽·CIS·아프리카·중동 등 대륙별 한글학교협의회 회장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국립국어원장 등 관계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국어원 관계자가 직접 한국어교육에 대한 주요 연구와 교육자료 개발내용, 국외 한국어교원 인증(가칭 K-teacher)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고 현지의 애로사항을 듣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현지 지역별 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재 개발과 한국어 교재의 원활한 공급, 국내에서 시행하는 한국어교원 자격시험 참여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알려오면서, 국립국어원의 교원인증 프로그램이 한글학교 상황에 맞게 개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기대감을 보였다.

김성곤 이사장은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과 한글학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소원 원장은 평소 한글학교와 인연이 깊었다고 하며, 한글학교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국의 한국어교원 인증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여 한글학교 교사의 역량 향상을 지원하겠다'면서, '한글학교에서 초동초통한 눈빛으로 수업을 들은 학생이 한글학교 선생님이 되는 미래를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

한편, 재외동포재단과 국립국어원은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 내실화를 위한 협력 토대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5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우리말로 깨닫다]

너무의 세계

너무는 '넘다'에서 온 말입니다. '넘'에 우가 붙어 만들어진 부사입니다. 사전의 설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정한 한계를 넘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계를 넘는 것에는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겠지만 너무라고 하면 주로 부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아예 설명을 할 때 부정적인 느낌에 쓰이는 표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너무를 강조할 때는 <너무나>라고도 합니다. 더 부정적이지요. 또한 너무에 '하다'가 붙으면 이런 느낌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너무하다는 말 자체로도 지나치다는 느낌이 강한 겁니다. '너무해요'라는 말의 느낌은 어떤가요? '너무하지 않아요?'라는 말에서 심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지나친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에서 부정적 느낌이 강조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넘다와 형제인 어휘로는 <남다>가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모음이 바뀌면 핵심적인 의미는 같지만 느낌은 확 달라지기도 합니다. 남다가 지나침이 주 느낌이라면 남다는 넉넉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남다에서 온 말로는 <남짓>을 들 수 있습니다. 남짓은 조금 넘는 정도라는 의미입니다. 즉 넘기는 하지만 지나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남은>도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열에서 조금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한자로 하자면 '십여(十餘)'가 됩니다. 너무 많이 넘는 것은 남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남다에서는 여유가 느껴집니다.

너무가 부정적이어서 그런지 너무가 앞에 붙으면 우리는 걱정이 됩니다. '너무 아프다, 너무 나쁘다, 너무 싫다'라는 말에서 보듯이 부정의 느낌을 더욱 강조합니다. 너무 힘든 느낌의 어휘라고나 할까요? 어휘 자체에 부정적인 느낌이 없어도 너무가 붙으면 걱정거리입니다. '너무 크다, 너무 많다, 너무 달다' 등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너무는 너무합니다. 크고, 많고, 단 게 나쁜 게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너무라는 말이 감정을 부정적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실제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를 활용해서 자신의 감정을 좋게 분출합니다. 오히려 긍정을 강조하는데 쓰고 있는 겁니다. 너무 좋고, 너무 예쁘고,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맛있는 음식도 많고, 너무 가 보고 싶은 곳도 많습니다. 너무의 세계가 좋은 감정의 과잉 분출로 나타난다는 점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너무'라는 말 대신에 <아주>나 <매우>, <정말> 등을 쓰면 맛이 안 나는 느낌도 있습니다. 특히 입말, 구어에서는 너무가 '딱'인 상황이 많습니다. 부정을 뛰어넘을 때 나타나는 긍정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정말 좋아요.'와 '너무 좋아요.'의 느낌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부정의 너무가 아니라 <긍정의 너무>를 사용할 일이 많기 바랍니다.

한편 뜻밖에도 너무가 부정의 표현과 어울려도 느낌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가 지나치다는 의미로 쓰이다보니 지나친 장면을 말리는 경우에는 오히려 너무가 위로가 됩니다.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걱정이 지나치면 힘이 듭니다. 잘 될 거라는 위로의 말을 할 때 지나침을 막는 말인 너무를 쓴 겁니다. 너무의 특별한 변신이지요.

너무 우울해 하지 마세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의기소침해 있지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내가 옆에 있잖아요. 힘들면 이야기하세요. 같이 이겨내도록 해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는데 같이 걸으며 이야기 나눠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와! 너무 좋다~' 한 번 입 밖으로 외쳐 볼까요.

(출처: 재외동포신문)

고려인 감독 박루슬란 "이번엔 정체성 떠난 이야기"

고려인 4세로 한국 영화계에서 활동해 온 박루슬란 감독이 10년만에 두번째 장편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고려인이라는 정체성을 떠나 스릴러 영화를 선택했습니다.

박효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1979년 소비에트 연방 카자흐스탄, 최고의 수사팀에 합류한 신입 수사관은 마을을 휘젓는 연쇄 살인마의 뒤를 쫓습니다.

고려인 4세로 지난해 한국에 귀화한 박루슬란 감독의 두번째 장편 영화 '쓰리,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1970년대 소련에서 실제 일어난 연쇄 살인사건을 다뤘습니다.

[박루슬란 / 영화감독] «영화스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가지

감정이 차오르더라고요. 스토리에 대해 들으면서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구요»

2012년 고려인 이야기를 다룬 첫 장편 '하나안'으로 국제영화계에서 주목받은 후 두번째 영화를 내기까지 꼬박 10년.

이번엔 정체성과 상관없는 스릴러 장르를, 그것도 빠듯한 제작비 5억원으로 완성하는 도전에 나섰습니다.

[박루슬란 / 영화감독] «하루 빨리 이질감을 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야 더 큰 영화를 할 수 있겠다. 제 정체성과 관련된 이야기보다 좀 더 재밌는 영화를 찍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 박 감독은 소비에트연방 해체 이후, 어두운 청년기를 보

내다 2000년 한국에 왔고, 새로운 길을 발견했습니다.

영화 감독이 되기로 결심한 뒤 무작정 영화 촬영 현장을 찾아갔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박루슬란 / 영화감독] «한국 오니까 신세계를 본거죠. 저랑 동갑인 사람들이 여러가지 꿈을 꾸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부러워서 제 꿈이 뭔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거든요.»

20년 가까운 영화 외길을 걷는 동안 한국 영화 위상 역시 달라진 터.박 감독은 해외에선 '기생충'을 자막없이 볼 수 있다는게 자신의 큰 자랑거리로 통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충북대 '사할린즈'팀 사할린 영주귀국주민들과 한국의 정 나눈다

충북대 동아리 '사할린즈(회장: 러시아언어문화학과 2학년 신민호 외 18명)'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실시한 '2022 대학생 멘토링 동아리 지원사업'동아리야, 멘토링 하자!'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전했다.

'사할린즈' 팀은 청주시 오송에 거주하는 사할린 영주귀국 주민 한인들을 대상으로 4월부터 9월까지 한국어 멘토링, 사할린 한인 인식개선캠페인, 가정의 달 맞이 카네이션 행사, 러시아 음식 체험 행사 등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충북대 러시아언어문화학과 학생들은 지난 2021년까지 사할린 한인사 관련 도서발행, 사진전, 역사특강, 문화체험 등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신민호 '사할린즈' 회장은 "팀원들 모두 프로그램 선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체계적인 제안서와 면접 준비를 한 결과라 뿌듯하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는 다양한 결과물들은 '사할린 한인사', '사할린 한인들의 귀국사' 등과 같은 책자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원한 러시아언어문화학과장은 "'사할린즈' 동아리는 러시아언어문화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심리학과, 국제경영학과 등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학생들이 자신들이 가진 전공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되는 동아리로 충북대 비교과통합시스템인 '씨앗'을 기반으로 오송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은 지역 기관들과의 상호연계를 통해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2 대학생 멘토링 동아리 지원사업' '동아리야, 멘토링 하자!' 프로그램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대학생 멘토 풀(MENTO POOL) 확대를 통한 나눔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전국 대학생 동아리 30팀을 선정,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베리타스알파]

재외동포재단, 제10기 자문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4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0기 자문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자문위원회는 국내 및 해외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자문위원은 재외동포재단의 미래지향적이고 실효적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자문을 할 예정이다.

위촉식 이후 열린 제1차 자문위원 회의에서 손세주 전 뉴욕총영사를 자문위원장으로 추대하였으며, 국내체류 동포, 한상대회 해외 개최, 재단 중장기 비전 등에 대한 발전적인 업무협의를 진행하였다.

김성곤 이사장은 "제10기 자문위원은, 지난 25년 간 재외동포재단의 활동성과와 개선필요사항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재외동포사회와 모국 간의 상생 협력 관계가 더욱 견고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논현2동 통장협의회, 새봄맞이 사할린경로당 대청소 실시

인천시 남동구 논현2동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동 통장협의회 주관으로 새봄맞이 사할린경로당 대청소와 방역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로 휴관 중이었던 사할린경로당을 찾아 출입문 손잡이, 각종 집기류 등을 소독하고 오랫동안 쌓인 먼지들을 제거했다.

민효기 통장협의회장은 "봄을 맞아 경로당에 쌓여있던 묵은 먼지를 제거하며 보람을 느꼈고 경로당 재개관 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경로당 환경정비와 방역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갑천 논현2동장은 "항상 우리 동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통장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휴관 중이었던 경로당이 하루빨리 재개관되어 어르신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경인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2021년에 <러시아 연방. 달리기> 전국 하프마라톤 대회에 сахалин주에서는 500여 명 이상이 참가했다. 올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행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등록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 시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시를 선택하여 4개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1km 코스는 6세-12세 아동과 сахалин의 발달장애인이 참가할 수 있고, 5km 코스는 13세 이상의 сахалин 주민이 참가, 10km 코스와 21.1km 코스는 18세 이상의 주민이 참가할 수 있다. 참가 등록은 2022년 5월 8일까지이며, 선착순 1000명이 참가할 수 있다. 하프마라톤 대회 날짜는 5월 22일로 예정되어 있고 개막식은 16시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 '러시아는 나의 역사' 역사 기념박물관 부근에서 시작된다.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полумарафоне «ЗаБег.РФ»

Официальное физкультур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Всероссийский полумарафон «ЗаБег.РФ» пройде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2 мая 2022 года. Регистрация на мероприятие уже стартовала. Забег пройдет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уже в третий раз,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област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В 2021 году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полумарафоне «ЗаБег.РФ»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500 жителей островно-

го региона.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тать участниками соревнований в этом году, необходимо пройти регистрацию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мероприятия. При заполнении заявки необходимо будет выбрать город Южно-Сахалинск, а также одну из четырех дистанций.

Дети в возрасте от 6 до 12 лет, а также сахалинцы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смогут преодолеть дистанцию в 1 км.

Островитяне в возрасте от 13 лет и старше могут выйти на дистанцию 5 км. А дистанции 10 и 21, 1 км смогут пробежать участники от 18 лет и старше.

Регистрация будет идти до 8 мая 2022 года включительно. Участниками забега смогут стать только тысяча человек, которые первыми подадут заявки. Соревнования запланированы на 22 мая 2022 года.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начнется в 16:00 у здания Исторического парка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Хумск Денс марафон 대회, сахалин 3개 지역의 17개 팀 참가

전국 댄스의 날의 일환으로 진행된 행사가 Хумск, 아나와,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 및 트로이츠코예 마을에서 무용단들이 참가한 가운데 Хумск 문화회관 중앙홀에서 열렸다.

"Хумск의 댄스 마라톤은 2011년에 탄생했다. 이 행사는 2년에 1회 개최되며 올해는 지방자치체 간 대회로 조성되었다. 이런 활동이 전통으로 이어져가길 바란다."고 문화·체육·청년정치청의 노 위탈리 청장이 말했다.

축제의 댄스 프로그램에는 50개의 밝고 화려한 댄스 목

록이 펼쳐졌다.

관객들 앞에 전형적인 민속 무용단이 출연했는데 이들 중 가장 어린 참가자들은 유치원생들이었다.

주최 측은 대회 모든 참가자들에게 감사장과 트로피, 기념 상품을 수여하고, 관객 인기상은 Хум스크의 '올리브카(미소)'유치원의 '카라멜키'유아 무용단에게 수여했다.

В Холмске в танцевальном марафон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17 коллективов из тре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Сахалина

Артисты приехали из Холмска, Анив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села Троицкого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ходило в рамках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дня танца на площадке центрального дома культуры Холмска.


- Танцевальный марафон в Холмске зародился в 2011 году, - рассказал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Виталий Но. - Фестиваль проводится один раз в два года. В этом году мероприятие обрело межмуниципальный уровень. Надеемся, что такой размах станет традиционным.

В ходе танцев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фестиваля было показано 50 ярких, красочных номеров. Перед зрителями выступили образцовые и народные коллективы, самыми юными участниками стали воспитанники детских садов.



Все участники были отмечены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ми письмами, кубками и памятными подарками. Приза зрительских симпатий был удостоен самый юный коллектив - «Карамельки» из детского сада "Улыбка" г. Холмск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Реклама



КИНО


ТЕАТР




КОНЦЕРТЫ

Ваш портал в мир развлечени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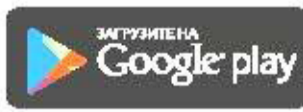

Вы можете купить билеты



на сайте
bilet.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билет.sakh.com](http://bilet.sakh.com)

<p><i>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i></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야</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